

## 경제적 자주노선과 김정일의 외교 다변화 정책

Online Series CO 11-22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언론은 8월 24일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25일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김정일 특별열차 내부까지 공개할 정도로 북한 언론은 금번 김정일 방러를 크게 홍보하였다. 이는 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행을 파괴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부터 파악해야 한다.

주체사상은 “수령의 지도를 잘 따르는 자만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수령의 지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주’이다. 사상,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자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강대국의 노예가 되거나 멸망한다고 수령은 ‘교시’하였다. ‘후대 수령’인 김정일은 이를 절대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가 수령의 지위에 등극한 것은 주체사상의 정수인 ‘혁명적 수령관’을 잘 준수할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동안 수령의 교시인 각 부문에서의 자주를 ‘폐쇄’에 가까울 정도로 엄격히 준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부문에서의 자주인 ‘경제에서의 자립’을 성취하지 못한 채 남한과 중국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다. 경제적 의존은 정치적 자주를 파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소멸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수령의 교시였다.

이것은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수령의 교시를 준수하지 못하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분야마다 다르지만 유류는 100%, 생필품은 약 90%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 김정일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그리고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의 면담 때 “중국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중국이 언제 돌변하여 경제적 카드를 활용하여 북한을 옥죄일지 모른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상황을 하루속히 변경해야 할 책무를 느꼈을 것이다. 자칫 김일성 수령의 예언이 현실화 될 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생존시 중소 등거리 외교를 통해 어느 일방이 북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누구보다도 수령 김일성을 잘 따르는 김정일로서는 이러한 수령의 경로를 채택(path dependency)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8월 24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은 김정일의 대중 의존도 약화를 위한 행보였고(8월 21일자, 미국 Washington Post지), 남한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원년 선포에 필요한 경제적 성과 획득과 장차 연간 약 1억 달러의 외화 획득 등이 목적이었겠지만 크게는 러시아와 남한을 끌어들이며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사상 주변 강대국의 패권 교체기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항상 전란이 일어났고,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다. 김정일은 중국의 강대화는 북한의 안전에 큰 위협이고, 특히 미-중간 패권 다툼 속에서 언제 다시 북한이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관 사업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자국 이익 획득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고, 북한이 이를 활용하여 북한통과 가스관 매설 사업이 가시화된 것이다. 물론 향후 이 사업이 순조롭게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남한의 여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가 미지수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 가스관의 안전 문제, 비용 분담 문제, 이익금 분배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 언론이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 ‘북극곰’이 드디어 긴 동면을 끝내고 중국의 일방적 대북 영향력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시작했고, 그것을 견인해 낸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점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 언론은 지난 북러 정상회담을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더 크게 평가한 것 같다.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러시아는 물론 남한, 미국, 일본과의 외교 다변화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전략을 적시에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 도입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